

Hussein Chalayan 컬렉션 분석

윤지영

서울대학교 의류학과 박사

An Analysis of the Fashion Collection of Hussein Chalayan

Jiyoung Yun

Doctor, Dept. of Clothing & Textiles, Seoul National University

(투고일: 2008. 9. 9, 심사(수정)일: 2008. 10. 20, 개재확정일: 2008. 12. 15)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on the fashion collection of Hussein Chalayan who has changed the concept of fashion design in the 21st century and has pioneered in the new vision of fashion. This study will give a new perspective and perception of fashion as a conceptual and ideological art. The conclus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Hussein Chalayan's multicultural ideas and interdisciplinary approaches which based in national speciality are the unique elements in his works. Second, Hussein Chalayan intends to present his works as an expression of conception. He has expressed the clothes which speaks the form of nature, symbolizes the combination of culture, visualizes time and space and investigates the existence of human being. Third, Hussein Chalayan has asked an endless question about existence of the human being. Furthermore, He has put a question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time, space, history, nature and the human being. His trial to visualize the metaphysical conception of 'ego' and 'self' through his works of art makes him as the designer who represents the 21st century. Forth, Hussein Chalayan pursues the communication between the human being and the world. His works is made for human being and makes the human life as valuable thing. Because the clothes is completed when the human wears it, it can not exist without the relationship of human being. Fifth, Hussein Chalayan makes a various attempt to combine with different artistic field. Fashion has developed to new direction with diverse trial and combination beyond fashion field and this has to be a direction in the 21st century fashion. Fashion is not just making clothes, but accepting and delivering the history and culture, expressing and communicating empathy, and combining the different fields harmoniously.

Key words: Hussein Chalayan(후세인 샬라얀), kunstwollen(예술의지), multiculturalism(다문화주의), interdisciplinary(이분야적 제휴), metaphysical(형이상학적)

I. 서론

새로운 세기를 시작하고 있는 지금, 패션이라는 문화는 강력한 이미지를 창조하고 있다. 터키 태생이며 런던에 근거를 두고 있는 Hussein Chalayan의 작품은 논리적 관념을 제공하는 정신적인 영역을 차지하고 있으며, 옷을 입은 인체를 건축, 엔지니어링, 수학, 그리고 철학의 옆 자리에 위치시키고 있으며, 인간의 관념이라는 창조적이고 지적인 부분으로 패션 매체를 개선시키고 있다. Hussein Chalayan에 의해 개척된 창조성의 원리로 패션은 부흥(復興)과 존경 받을 만한 타당성을 발견하고 있으며, 컬렉션을 통해 제시되는 운송 시스템, 도시 계획 그리고 의사소통의 네트워크로서의 디자인을 비평과 변화의 실질적인 매체와의 동등한 자리에 위치시키고 있다¹⁾. 건축가, 예술가, 영화 제작자, 디자이너 등 다양한 역할 사이의 경계를 허문 Chalayan은 옷, 심상의 이미지, 건축물 그리고 테크놀로지 사이의 기대하지 않은 결합 관계를 만들어내며 패션과 다른 창조적인 원리가 분리된 존재라는 전제를 반박하고 있다²⁾. Chalayan은 패션디자인에 관념적(觀念的)으로 접근하고 있으며 가상과 현실, 2차원과 3차원의 시·공간을 넘나드는 디자인을 통해 타 분야의 영역을 넘나들며 새로운 실루엣과 인체미를 창조해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21세기 패션 디자인의 개념을 변화시키고 패션이라는 분야를 통한 다양한 실험을 거듭하고 있는 Hussein Chalayan의 컬렉션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이는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패션을 바라보는 열린 사고를 제공하며 좀 더 관념적이고 개념적인 사고를 가능하게 하는 시각을 제공하리라 사료된다. Hussein Chalayan 최초의 작품인 1993년 'The Tangent Flows'를 시작으로 최근 컬렉션까지를 시기에 따라 고찰하고, 그의 대표적인 작품들의 형태적 특성을 비롯하여 Chalayan이 작품을 통해 표현하고 전달하고자 했던 작품 속 상징성과 내적 의미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Hussein Chalayan의 컬렉션을 연대기적으로 고찰해 보고 각 컬렉션의 특성을 살펴본다.

둘째, Hussein Chalayan 컬렉션을 통해 그의 작품들의 형태적 특성을 살펴본다.

셋째, 각 컬렉션에 영향을 미치는 외적인 요인들을 살펴보고 이에 따른 창작물의 특성을 고찰해본다.

넷째, 컬렉션을 통해 표현되고 있는 작품의 상징성과 이를 통해 Hussein Chalayan이 의도하고 있는 내적 예술 의지를 고찰해 본다.

다섯째, Hussein Chalayan 작품을 통해 공유되는 미적 향수를 고찰해보고 이를 통해 앞으로의 패션이 예술의 한 분야로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의해 본다.

II. 컬렉션의 연대기적 고찰

1. 1993년~1997년

Hussein Chalayan은 런던의 Central Saint Martins에서 패션을 전공하였으며 졸업 작품인 'The Tangent Flows' 컬렉션은 패션의 도시에서 그를 신기함과 새로움의 명성을 가진 디자이너로 주목받게 했다³⁾. 이 컬렉션에서 선보인 철가루(iron filings)를 뿐 정원에 몇 주간 묻어둔 옷⁴⁾은 개념 예술가로서의 그의 면모를 보여주는 작품이다(그림 1)⁵⁾. 그의 첫 번째 상업적 컬렉션인 Cartesia(1994 A/W)에서 이 파묻었던 드레스를 다시 선보였으며 이는 데카르트적(Cartesian) 관점에 근원을 둔 Chalayan이 직접 쓴 이야기에서 영감을 받았다. 그의 첫 번째 컬렉션은 런던 패션 위크에 선보여졌고 철학적이고 과학적 이론을 이끌어내고 있으며 이는 섹시하기보다 지성적이고, 금속적이었다. Chalayan의 초기 컬렉션 속 부서지고 파괴되는 옷은 시간의 흔적에 의해 낡고 파괴되는 것의 개념을 시각화하여 보여주고 있다⁶⁾. 또한 찢겨지지 않는 종이인 타이벡(Tyvek)⁷⁾으로 만든 'airmail clothing'은 옷을 비행의 은유적 매체로 만들고 있는데, 가벼운 무게의 'airmail clothing'은 글씨를 쓸 수도 있으며 접어서 봉투에 넣어 봉한 후 우편으로 부칠 수도 있다⁸⁾.

Temporary Interference 컬렉션(1995 S/S)은 그가



〈그림 1〉 Hussein Chalayan,
1993

만들어낸 보드 게임에서 영감을 얻고 있으며 Along False Equator 컬렉션(1995 A/W)은 프린트가 주 모티브이다. 비행길이 프린트된 드레스와 LED 라이트와 결합되어 밤에 빛나는 비행기와 같이 빛이 나도록 비즈가 장식된 종이 수트가 포함되어 있다⁹⁾. 또한 나무로 된 코르셋 구조물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후의 그의 컬렉션을 통해 시리즈로 선보이고 있는 비행기 드레스의 형태적 틀을 제시하고 있다. Noah's Arc와 아마겟돈(Armageddon)은 Nothing/Interscope 컬렉션(1996 S/S)을 창작하는데 영감을 주었다. 이 컬렉션은 인류의 마지막 전쟁을 통해 어떤 일이 인간의 몸에 일어날 수 있는가를 시각화하고 있으며 패션쇼에서는 재앙 후 상처받은 인체를 코르셋을 통해 제시하고 있다. 편견과 잔학함이 개입되어 있는 독일의 동화 라푼젤(Rapunzel)의 이야기를 통해 바라본 여성의 역할은 Lands Without 컬렉션(1997 S/S)의 시작점을 이룬다. 감옥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어떤 것이라도 이용해서 탈출하려는 그녀의 시도는 Chalayan에게 탈출을 위해 사용했을 것 같은 일종의 연을 디자인하도록 영감을 준다. 한편 Scent of Tempest 컬렉션(1997 A/W)은 날씨에 관한 아이디어에 근원을 두고 있으며 모든 옷과 액세서리는 날씨와 관계되는 디자인이다¹⁰⁾.

2. 1998년~2001년

패션과 타 영역의 조우(遭遇)를 통한 실험적인 디자인이 본격화된 Between(1998 S/S) 컬렉션은 그가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있는 패션과 건축의 연계(連繫)를 통한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¹¹⁾를 표방하고 있다. 이 컬렉션을 통해 그는 다양한 문화적 코드를 수용하는 이탈자적 영역에 입문하게 된다¹²⁾. Ludwig Wittgenstein(1889-1951)의 사상이 컬렉션의 영감을 구성하고 있는 Panoramic(1998 F/W)을 통해서는 인간과 환경의 혼합을 시각화한다. 그는 L. Wittgenstein의 형이상학에 대한 철학적 논의를 옷을 통해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 그의 컬렉션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주제이기도 하며 개인적인 역사적 배경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자아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작업이기도 하다.

Geotropics 컬렉션(1999 S/S)은 다른 시기와 장소로부터의 각 나라 복식을 함께 이형태화(morphed)시키고 있다. 또한 테크놀로지의 기술과 그 영향력을 옷을 통해 시각화하여 제시하고 있다. 그가 이주와 여행의 테마를 형상화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비행기와 자동차의 형상과 인테리어를 옷을 통해 표현하고 있다. 옷을 착장의 개념이 아닌 공간의 개념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그 공간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형하고 움직인다. 컬렉션의 이름에서도 언급되고 있듯이 지리학적인 요소와 여행, 이동의 개념을 결합하여 제시하고 있다. Echoform(1999 A/W)에서 Chalayan은 속도에 대한 인체의 본질적인 역량을 관찰하고 테크놀로지에 의해 강화될 수 있는 방법을 관찰하며¹³⁾ 전 시즌에서 시도했던 옷과 테크놀로지의 결합을 좀 더 구체화시키고 있다. Before Minus Now(2000 S/S) 컬렉션에 이르러서는 테크놀로지와 자연의 보이지 않는 힘을 옷을 통해 시각화시킨 놀라운 그의 디자인 역량(力量)을 보여준다. 이 컬렉션은 인류, 테크놀로지와 자연 사이의 관계에 중점을 맞추고 있으며 컬렉션을 위한 영감의 근원은 중력과 같은 ‘무형의’ 현상, 확장과 날씨의 힘, 자연의 모든 종류의 형상의 원인이 되는 구조적 힘과 같은 것이다¹⁴⁾.

Hussein Chalayan의 놀라운 상상력과 경계를 뛰어 넘는 디자인 능력을 보여준 최고의 컬렉션인 After-

words(2000 A/W)를 통해 그는 패션을 인간의 관념을 표출하는 하나의 예술 대상으로 그 위치를 격상(格上)시키고 있다. 이 컬렉션을 통해 그는 21세기의 정체성에 대한 형이상학적인 고찰을 제시하고 있다. 그는 M. Heidegger(1889-1976)의 이론에 근거한 인간의 존재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으며 자신을 비롯한 인간 정체성에 대한 형이상학적 고찰을 시도하고 있다. 한편, Ventiloquy 컬렉션(2001 S/S)은 패션쇼라는 비주얼한 대상을 디지털 기술과 연계시켜 제시하고 있다. Chalayan은 애니메이션 필름을 보여주는 것으로부터 쇼를 시작하고 있으며¹⁵⁾ 디지털 이미지의 새로운 테크놀로지와 패션쇼 무대의 전통성 사이를 연결하고 있다. Chalayan은 컴퓨터 모델과 패션모델 사이, 허상과 실질적인 인체 사이, 이미지와 물체 사이에서의 대조를 제시하고 있다¹⁶⁾.

3. 2001년 이후

21세기에 들어서 Hussein Chalayan은 좀 더 관념적인 것들을 옷을 통해 시각화하고자 시도한다. 그는 자연, 인생, 시간, 여행, 희망, 원죄, 고독과 같이 형이상학적인 개념들을 인체를 통해 완성되는 ‘옷’이라는 대상을 통해 표현하고자 하는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Mapreading 컬렉션(2001 A/W)은 여행, 시간, 인생의 덧없음 그리고 추억 사이의 관계를 고찰하고 있으며 Medea, AF Sandys 컬렉션(2002 S/S)에서는 고고학적인 발굴과 같은 시도를 통해 과거의 역사와 현재를 혼합하고 있으며 과거 기억 속의 복식들이 해체된 착장의 다양한 레이어를 통해 그것의 근원을 이야기하고 있다¹⁷⁾.

Ambimorphous 컬렉션(2002 A/W)에서는 Chalayan 자신의 뿌리를 이루는 터키와 자신의 삶의 터전이 되고 있는 서양의 문명을 혼합하고 해체시키고 있다. 컬렉션의 이름이 의미하고 있듯이 양쪽의 문화를 이동하면서 서로의 의미와 형태를 병치시키고 있으며 이는 동양과 서양 문화의 동등함을 옷을 통해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과정 속에 나타나는 다문화적 경향과 문화적 변종의 모습을 통해 문화적 상대주의를 표명하고 있다. Manifest Destiny 컬렉션(2003 S/S)을 통해서는 강압적인 서양의 전통과 문화로부터 인체를

자유롭게 하고자 하는 그의 의지를 엿볼 수 있다.

Kinship Journeys 컬렉션(2003 A/W)은 좀 더 근원적인 인간의 삶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그는 희망, 인간의 원죄, 구원 등과 같은 형이상학적 요소들을 옷과 패션쇼 무대를 통해 형상화시키고 있다. Temporal Meditations 컬렉션(2004 S/S)의 테마는 키프로스(Cyprus) 섬과 이주의 역사이다. 이주의 오래된 패턴을 발견하기 위해 Chalayan은 유전적 인류학을 연구했으며 이와 같은 과정을 행함으로써 그는 다양한 유전적 배경의 모든 것들이 어떻게 Chalayan 자신의 정체성에 영향을 주었는가에 대한 질문을 연계시키고 있다¹⁸⁾. Anthropology of Solitude 컬렉션(2004 A/W)에서는 인간의 고독과 소외라는 현대 사회의 문제를 제시하고 있다. Chalayan은 테크놀로지가 지배하는 현대 사회 속에서의 인간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의 문제점과 개개인의 고립과 고독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또한 Blindsight 컬렉션(2005 S/S)을 통해서 Chalayan은 이미 우리에게 익숙한 것들을 낯설게 만드는 작업을 시도하고 있다.

Hussein Chalayan은 Genometrics(2005 A/W), Heliotropics(2006 S/S), Repose (2006 A/W), One Hundred and Eleven(2007 S/S), Airborne(2007 A/W), Readings (2008 S/S) 그리고 가장 최근의 Grains and Steel(2008 A/W)을 지속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더불어 그는 ‘Art Projects’를 1999년 Echoform 컬렉션의 ‘Aeroplane Dress’를 시작으로 패션 컬렉션과 함께 발표하고 있다. Afterwards(2000)의 ‘Wearable architecture’, Place to Passage(2003), Temporal Meditations(2003)와 Anaesthetics(2004)의 필름 작업, Absent Presence(2005), Compassion Fatigue(2006), 그리고 개념적 예술 설치작업인 Repose(2006)까지, 새로운 작업을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있다.

Chalayan은 자신의 브랜드인 ‘Cartesia’, 런던의 Marks & Spencer와의 Top Shop 그리고 뉴욕 캐시미어 회사인 ‘TSE’를 포함한 대중적 시장의 소매상을 위한 디자인을 하고 있으며 영국의 보석 회사인 ‘Asprey’에 고용되어 디자인을 하는 등¹⁹⁾ 패션 디자이너로서 예외적으로 상업적인 부분과 개념적인 부분에서 동시에 성공한 디자이너로 평가받고 있다.

〈표 1〉 Hussein Chalayan 시기별 컬렉션 및 Art Projects

시기별 컬렉션	컬렉션의 특성
The Tangent Flows 1993	*buried dress-철가루를 뿐려 땅에 몇 주간 묻어 둔 드레스를 통해 시간의 흐름을 시각화
Cartesia 1994 A/W	*테카르트(Cartesian)적 관점에 근원을 둔 Chalayan이 직접 쓴 이야기를 바탕으로 함 *buried dress, airmail clothing
Temporary Interference 1995 S/S	*Chalayan이 만들어 낸 보드 게임을 형상화
Along False Equator 1995 A/W	*프린트가 주 모티브, 비행기의 활주로가 프린트 된 드레스, 비즈가 놓여진 종이 수트, 나무로 된 코르셋 구조물
Nothing/ Interscope 1996 S/S	*Noah's Arc와 아마겟돈(Armageddon)에서 영감을 받음 *재앙 후 상처받은 인간의 신체를 코르셋을 통해 제시
Still Life 1996 A/W	*그래픽 패턴이 프린트된 신축성 소재의 드레스
Lands Without 1997 S/S	*라푼젤(Rapunzel) 동화 속 이야기를 통해 여성의 역할을 형상화
Scent of Tempest 1997 A/W	*날씨에 관한 아이디어에서 영감을 받음
Between 1998 S/S	*Multiculturalism-문화의 다양성을 수용 *패션과 건축의 연계
Panoramic 1998 A/W	*L. Wittgenstein의 형이상학 논의 *인간의 환경과의 혼합을 통한 자아상실
Geotropics 1999 S/S	*Motorized airplane dress *몰프(morph) 방식을 통해 변형의 과정을 제시
Echoform 1999 A/W	*옷과 테크놀러지의 결합 *시간과 공간의 초월 개념
Before Minus Now 2000 S/S	*비행기, 자동차 등 현대 테크놀로지의 영향 *자연의 영향을 시각화
Afterwords 2000 A/W	*wearable architecture-옷과 가구 사이의 경계 파괴 *M. Heidegger의 존재론
Ventriloquy 2001 S/S	*패션쇼를 디지털 기술과 연계-이분야적 접근
Mapreading 2001 A/W	*자연 순화의 원리 *여행, 시간, 인생의 덧없음을 시각화
Medea, AF Sandys 2002 S/S	*과거 패션의 역사와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결합
Ambimorphous 2002 A/W	*Multiculturalism-다문화적 병치 *문화적 상대주의-동양과 서양의 동등함
Manifest Destiny 2003 S/S	*자아정체성의 회복 *강압적인 서양 전통으로부터 인체의 자유를 형상화
Kinship Journeys 2003 A/W	*희망, 죄, 구원의 상징과 형상화 *인간의 원죄에 대한 고찰
Place/ Non-Place(Men's) 2003 A/W	*옷을 통해 장소와 순간에 대한 창작자의 추억과의 결합을 시도 *비공간적 장소(non-place)를 공간적 장소(place)로 변화시키는 것을 옷을 통해 시도
Temporal Meditations 2004 S/S	*고향의 이주 역사를 옷으로 형상화 *유전적 배경과 환경, 정체성의 관계
Anthropology of Solitude 2004 A/W	*옷을 고독과 연계 *에고(ego)와 자신(self)에 대한 상징
Blindsight 2005 S/S	*낯설게 하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상상하는 작업
Genometrics(2005 A/W), Heliotropics(2006 S/S), Repose(2006 A/W), One Hundred and Eleven(2007 S/S), Airborne(2007 A/W), Readings(2008 S/S), Grains and Steel(2008 A/W)	
Art Projects	Echoform 1999 *Aeroplane Dress
	Afterwords 2000 *Wearable architecture
	Place to Passage(Film) 2003 *비디오 설치 작업-전시와 이주 *끊임없이 유동적인 인간의 삶
	Temporal Meditations 2003 *키프로스(Cyprus) 고향에 대한 기억과 현재의 삶의 융합을 시도한 작품
	Anaesthetics(Film) 2004 *폭력의 공포가 다른 사회 속에서 의식화와 마취에 의해 변장하는 방식
	Absent Presence 2005 *자아 정체성, 지리학, 유전학, 생물학, 인류학에 근거한 불가사의한 이야기의 제시 *2005년 the 51st Venice Biennale의 Turkish Pavillion을 위한 첫 번째 작품
	Compassion Fatigue 2006 *자연의 궁극적인 형상화를 위해 필름의 철자화를 통해 분석 *이미 길들여진 현실의 양자택일적 형태를 제안하고자 함
	Repose 2006 *독일 Kunsthalle Mannheim Gallery에 전시된 개념적 예술 설치물 *Chalayan의 여행과 이동에 대한 지속적인 열정을 형상화

III. 컬렉션의 형태적 특성

1. 패션과 타 분야의 결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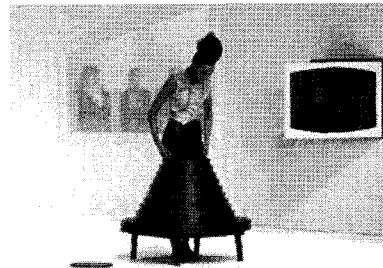
Hussein Chalayan의 가장 놀라운 착장은 Afterwards 컬렉션에서의 옷이 가구로 변형하는 작품 디자인이다(그림 2, 3)²⁰⁾. 심플한 언더슬립을 입은 모델이 의자로부터 뒷개를 벗겨내어 그것을 드레스로 입는다. 의자의 커버들은 회색이었으나 옷으로 입혀지면서 붉은색, 주황색, 연보라색 등의 색상으로 변화하고 러플, 주머니 등과 같은 디테일이 드러난다. 의자 자체는 접혀서 수트케이스가 되며 둥근 테이블은 테이블 중앙의 둥근 디스크를 제거하고 안쪽의 끝부분을 힙으로 끌어올려 허리에 붙임으로써 아코디언 형태의 스커트로 형태를 변형한다. Afterwards

에서 Chalayan은 옷을 가구로, 가구를 옷으로 바꿔놓고 있으며 이는 거실의 가구들을 통해 반복적으로 제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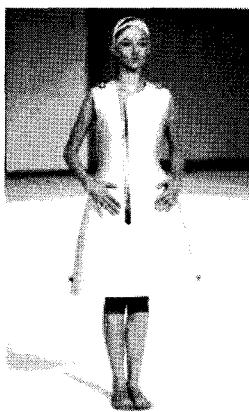
Geotropics 컬렉션의 'Motorized airplane dress'는 fiber glass로 만들어져 있다(그림 4)²¹⁾. 비행기의 형태를 옷을 통해 표현하고 있는 작품은 다음 시즌인 Echoform 컬렉션에 또 다시 등장한다. 이 작품은 'Aeroplane Dress'라고 불리는 비행기의 형태를 모방한 공기역학적(aerodynamics) 드레스로 유리섬유로 구성되어 있다(그림 5)²²⁾. 옷의 칼라, 스커트 정면의 하단, 그리고 스커트의 옆 부분에는 비행기 날개의 플랩(flaps)을 상징하는 구조물이 부착되어 있으며 전자(電磁)의 힘으로 작동되고 움직이다. Chalayan은 유리섬유 드레스를 Before Minus Now 컬렉션의 'Remote Control Dress'의 형태로 다시 제시하고 있



〈그림 2〉 Hussein Chalayan,
Wearable architecture, 2000 A/W



〈그림 3〉 Hussein Chalayan,
Wearable architecture, 2000 A/W



〈그림 4〉 Hussein
Chalayan, Motorized
airplane dress, 1999 S/S



〈그림 5〉 Hussein
Chalayan, Aeroplane
Dress, 1999 A/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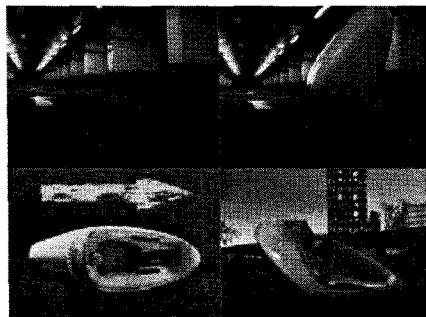
〈그림 6〉 Hussein
Chalayan, Remote
Control Dress, 2000 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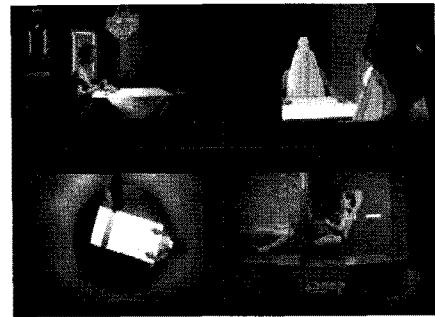
〈그림 7〉 Hussein
Chalayan, 1999 A/W



〈그림 8〉 Hussein Chalayan, 2000 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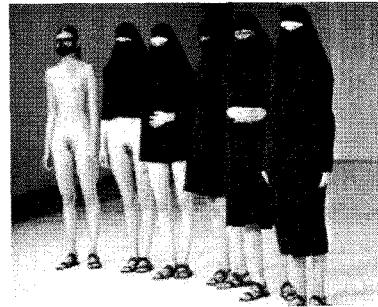
〈그림 9〉 Hussein Chalayan, Art Projects: Place to Passage, 2003



〈그림 10〉 Hussein Chalayan, Art Projects: Anaesthetics, 2004



〈그림 11〉 Hussein Chalayan, 2002 A/W



〈그림 12〉 Hussein Chalayan, 1998 S/S

다. 이 흰색의 비행기 드레스는 Marcus Tomlinson²³⁾과 함께 작업한 영화와 설치 예술 프로젝트로부터 발전된 것이다(그림 6)²⁴⁾.

Echoform 컬렉션을 통해서는 비행기 형태의 드레스와 더불어 인간공학(ergonomics)과 자동차의 내부 디자인에 중점을 두어 자동차의 머리 받침대와 같은 형태의 칼라가 달린 블랙 가죽 드레스를 선보인다²⁵⁾(그림 7)²⁶⁾. 또한 Before Minus Now에서의 디자인은 리모트 컨트롤 장치에 의해 메시지를 받는 디지털 시그널을 사용하고 있으며 테크놀로지가 옷을 입은 인체의 형태변화에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 주목하고 있다²⁷⁾. 항공 기술의 테크놀로지를 사용한 또 다른 드레스 작품은 유리 섬유와 합성수지의 결합으로 만든 재료를 사용하여 특별한 주형(moulds)을 만들어내고 있으며²⁸⁾ 다양한 힘의 형상을 제시한다. 특히 중력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은 레드 색상의 플레이어 드레스를 통해 표현되고 있다(그림 8)²⁹⁾.

Chalayan은 패션과 필름 영역의 결합을 다양하게

시도하고 있으며 그의 비디오 필름 작업인 'Place to Passage'와 'Anaesthetics'를 통해 극대화시키고 있다. Place to Passage는 Chalayan에 의해 만들어진 비디오 설치 작업으로 Formula One의 레이싱 팀인 BAR(British American Racing) Honda의 지원을 받았다(그림 9)³⁰⁾. 2004년 영화 Anaesthetics는 Chalayan의 앞선 필름에 비해 좀 더 추상적이며 좀 더 상징적이다(그림 10)³¹⁾. 이처럼 Chalayan은 패션과 다양한 예술 분야를 혼합하고 있으며 그에게 있어서 자신의 예술의지를 표출하는 분야는 제한이 없음을 알 수 있다.

2. 다양한 문화적 코드의 표현

터키 태생의 디자이너로서의 Chalayan의 동양과 서양 문화의 결합은 타 디자이너들의 성향과 차이를 보인다. Ambimorphous 컬렉션에서는 'little black dress'가 단계별로 변형(morphed)하여 웅장하고, 숨

막히는 화려한 색상의 전통적인 터키 전통의상으로 되며 그리고 나서, 또 다시 단계적으로 변형하여 또 다른 미니멀의 블랙 드레스로 된다. 터키 전통의상은 분리되고 해체됨을 반복하면서 블랙의 서양 복식의 요소들과 결합하고 있다³²⁾(그림 11)³³⁾. 터키 전통 복식의 경우는 화려한 자수, 프린트와 술 장식이 돋보이고 색상의 사용에서도 원색의 화려함이 시선을 끈다. 반면 서양을 상징하는 작품들의 경우는 블랙 혹은 어두운 브라운 색상이며 장식은 거의 배제된 상태이다. 변화 과정에서 제시되고 있는 옷의 경우는 마치 서로의 영역을 잠식해 나가는 듯한 느낌을 나타내고 있으며 치렁치렁 늘어지는 줄로써 서로의 관계를 연결하고 있는 듯이 보인다. Chalayan의 동·서 양 문화의 결합은 Between 컬렉션 쇼의 끝부분 다양한 길이의 챠도르(chadors)³⁴⁾를 입은 모델의 무대 등장을 통해 강렬하게 제시되고 있다(그림 12)³⁵⁾. 첫 번째 모델은 나체에 그녀의 얼굴만 애슈마크(yashmak)로 가리고 등장하고 연이어 등장하는 모델들은 그들의 몸을 점차적으로 많이 가려지는 형태의 챠도르를 입고 등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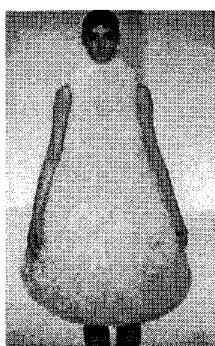
Chalayan의 다양한 문화 수용은 공간 개념뿐만 아니라 시간의 개념을 초월한다. Medea, AF Sandys 컬렉션에서는 지난 시즌의 작품들을 재생산하여 새로운 조화를 만들어내고 있다. Chalayan은 중고 드레스와 재킷을 그의 디자인과 결합하고 그가 염색한 원단 혹은 땅에 묻었던 원단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1960년대 드레스가 중세의 드레스의 형태적 과거를 드러내기 위해 잘려지고, 빅토리안 시대의 코르셋이 현대적 저지 베스트의 형태로 드러나고 있으며 1930년대 드레스는 에드워드 시대(Edwardian) 형태의 드레스로 제시되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로 해체된 옷은 다양한 레이어를 통해 그것의 근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³⁶⁾. 또한 Temporal Meditations 컬렉션을 통해서는 그의 출생지인 키프로스의 프린트와 역사적 전쟁의 장소였던 오스만 제국(Ottomans)과 베니스(Venetians)의 현대적 스카이 라인이 프린트된 드레스를 통해 과거의 시간을 현재로 가져오고 있다.

3. 자연의 힘, 시·공간, 개념의 형상화

Before Minus Now 컬렉션 속 꽃의 형상을 한 드레스는 리모컨트를로 작동된다(그림 13)³⁷⁾. 이는 구조적 붕괴와 부식에 의해 산이 생겨나는 방식에 영감을 받았다. 그 밖의 드레스들은 자연의 힘에 의한 지반의 용기와 확장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그림 14)³⁸⁾. 이와 같은 힘은 단단하고, 불규칙적이고, 딱딱하게 튀어나온 것과 같은 지리적 형태에 의해 제시되고 있다. 다양한 색상에 의해 제시되고 있는 드레스들은 지반의 형태를 형상화하는 상의와 풍성한 볼륨을 가진 주름진 플레어 스커트로 구성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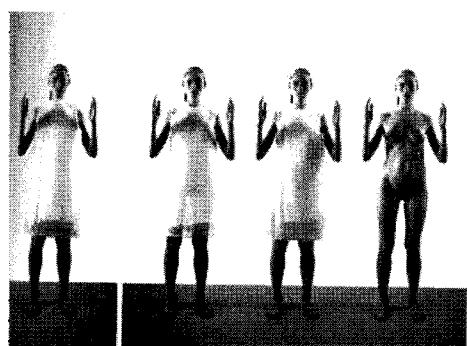
Chalayan은 Geotropics 컬렉션에서 컴퓨터 애니메이션을 통해 인체의 극소적 지리학(microgeography) 개념을 창작해 내고 있으며 다른 시기와 장소로부터



〈그림 13〉 Hussein Chalayan, 2000 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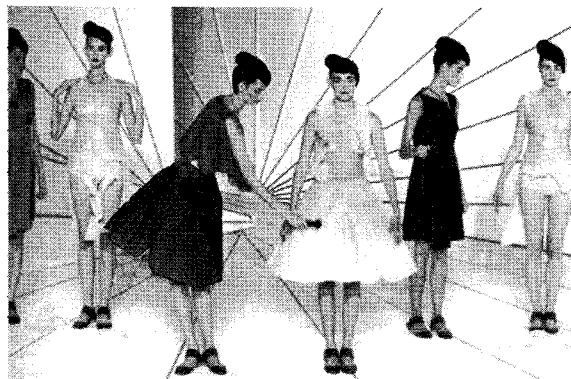
〈그림 14〉 Hussein Chalayan, 2000 S/S



〈그림 15〉 Hussein Chalayan, 1999 S/S



〈그림 16〉 Hussein Chalayan, 1998 S/S



〈그림 17〉 Hussein Chalayan, 2001 S/S



〈그림 18〉 Hussein Chalayan, 2003 S/S

의 각 나라 복식을 이형태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이 형의 형으로부터 심풀한 화이트 색상의 플리츠 쉬프트 드레스를 디자인했으며 각각의 작품은 약간의 변형된 형태를 가지고 있다. 여러 겹 레이어드된 스커트는 변화과정의 다른 스텝을 제시하며 나체의 모델로부터 시작해 점차 레이어드가 겹쳐져 가는 과정을 제시하고 있다(그림 15)³⁹⁾. Mapreading 컬렉션에서도 그는 몰핑⁴⁰⁾ 기술을 사용했으며 컬렉션 속의 하나의 모습은 자연스럽게 다른 하나에 의해 사라진다. Mapreading을 통해 보여지는 다양한 웃은 영화의 이미지와 같다. 몰핑의 기법은 시간의 변화와 이를 따라 변화하는 기억을 형상화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Between 패션쇼에서는 모델이 심풀한 레드 드레스를 입고 달걀 형태의 캡슐을 얼굴에 써서 그들의 얼굴을 가리며 등장한다. 무대 위의 모델들은 그들의 머리를 사각의 거울로 된 틀에 맞춰놓아 관찰자들이 모델뿐만 아니라 그들 자신이 반사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그림 16)⁴¹⁾. 결과적으로 대상에 대한 일방적인 관계의 엿보기는 상호관계로 바뀌게 되는 것이다⁴²⁾. Ventriloquy 컬렉션의 클라이막스에는 6명의 모델이 무대에 등장하며 그들 중 3명의 모델은 꽃의 모양을 뒤집어 놓은 형태의 스커트를 입고 있으며 이는 슈가 글래스로 만들어져 있다. 다른 3명의 모델은 작은 해머를 가지고 이 깨지기 쉬운 유리를 산산이 부숴 버린다(그림 17)⁴³⁾. 이후 모델들은 거의 나

체의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 이를 통해 결국 인체는 무(無)의 형태로 돌아가게 됨을 보여준다. Manifest Destiny 컬렉션에서 Chalayan은 해부학을 시작점으로 옷을 디자인하고 있으며 인체의 변형을 시도하고 있다. 마지막에 등장하는 드레스는 복근 부분이 ‘구멍’의 형태로 되어있으며 이는 마치 어떤 장기가 인체로부터 분리되어 나오는 듯하다. 그리고 색색의 줄은 피부의 다양한 레이어를 제시하고 있다⁴⁴⁾(그림 18)⁴⁵⁾.

IV. 컬렉션에 영향을 미치는 외적 요인

1. 고향인 키프로스(Cyprus)의 분리와 이주

Chalayan은 터키 키프로스 태생의 뛰어난 예술가로 그의 작품은 세계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혹은 개인적으로 무엇이 그를 채우고 있는가에 의해 제시되고 있다. 그의 작품에서의 중요한 요소는 다양한 문화의 영향력이며 서유럽의 문화와 터키 문화의 진정한 만남의 결과를 가져온, 서양의 문화와 비서양의 문화적 요소들 사이의 대립으로, 그의 창조는 전통적인 서양의 지배적 요소와 비서양적 문화의 요소들을 함께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히 표면적인 장식의 그것보다 더 많은 것을 의미한다. 이것이 많은 다른 디자이너들로부터 Chalayan을 구별짓는 요소이며, 표면적인 패션 세계에 그 어떤 무언가를 첨가시키고 있는 것으로 이는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언

급⁴⁶⁾이다.

Chalayan의 모든 영역을 넘나드는 작업 방식은 그 자신의 개인적인 역사에서 비롯된다. 니코시아(Nicosia)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그는 1974년 키프로스가 그리스와 터키로 강제 분리되는 경험을 한다. Chalayan은 동양과 서양 사이의 가장 지형적으로 민감한 문화적 경계선에서 자라났다. 유럽과 완전히 서양적이지 않은 것 사이의 위치는 '이국적인(exotic)'으로 특징 지워지며, 유럽 연합으로 들어가는 입구적인 역할로서의 터키 문화는 역사적으로 서양과 연관되어 있으며 동시에 유럽과는 차이점을 가진다⁴⁷⁾. Chalayan의 어린 시절은 두 문화 사이에서 분리되었고 이는 그에게 있어 본질적인 현대의 문제점을 상징화하는 요소가 된다. 이에 대해 철학자 Gilles Lipovetsky (1944-)는 'Chalayan의 패션은 패션 자체의 경박함을 떠나 우리를 유동적인 현대적 문명인으로서, 오늘 날 세계가 요구하는 정신적으로 빠른 변화에 능숙하게 적응하는 것을 훈련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⁴⁸⁾고 언급하고 있다.

Chalayan은 다문화주의 개념을 옷을 통해 시작화하고 있으며 인간의 몸과 관계되는 문화적, 지리학적 영역을 탐구하고 있다. 그는 동양의 전통적인 복식의 아이템을 통해 인체의 드러냄과 감춤이라는 개념의 반전을 시도하고 있으며 이는 기존의 관념을 전위시키고 있다⁴⁹⁾. 특히 Afterwords 컬렉션은 전쟁 시 피난처의 테마를 숨김과 위장의 과정 혹은 비행 시 그것들을 가지고 다니는 것과 연계시켰다⁵⁰⁾. 다문화적 병치의 주제를 가장 완벽하게 그리고 명백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 Ambimorphous 컬렉션이며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의 적합한 재구성의 복잡성을 보여주고 있다⁵¹⁾. 이를 통해 Chalayan은 문화적 상대주의(Relativism)를 제시하고 있다.

2. 테크놀로지

Chalayan은 자신만의 독특한 관념을 바탕으로 비행기와 같은 구조물을 디자인하고 있으며 그의 시각에 따라 옷이 아닌 다른 표현법을 통해 제시되고 있다. 그의 비행에 대한 매혹은 산업 디자이너인 Marc

Newson(1963-)⁵²⁾과 함께하고 있으며 그는 Chalayan의 비행기에 대한 비전을 예술적 대상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가능하게 했다. Chalayan은 현대적인 감각을 가지고 가구와 인테리어 디자인을 비행의 궤도와 유사한 디자인으로 표현했으며 이는 비디오 필름 작업인 'Place to Passage'와 'Anaesthetics'를 통해 극대화되고 있다. Chalayan에게 있어 영화를 창작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패션쇼를 창작하는 것이며 각각의 매체는 본질적으로 같은 연속성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⁵³⁾.

Chalayan은 아주와 여행의 개념을 표현하기 위해 비행기 혹은 자동차와 같은 형태적 요소를 결합하고 있다. Geotropics, Echoform 그리고 Before Minus Now 컬렉션에서 Chalayan의 3별의 딱딱한 합성수지 드레스는 원단에 대한 실험적 청사진으로 제시되고 있으며 영화와 컴퓨터 애니메이션을 통한 경험에서 나온 것으로 그의 이야기를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효과로 발전시킨 것이다. Chalayan은 연속적인 세 별의 드레스를 통해 디자인 모티프를 반복하고 있고 이를 통해 Chalayan 자신을 구성하는 것에 대한 경험의 과정을 가정하고 있으며 이는 또한 기술을 적용하고 즐기는 자신에 대한 제안이기도 하다⁵⁴⁾. Geotropics 컬렉션에서는 자동차의 형태와 이동의 개념을 형상화한 작품이 등장하고 연이어 Echoform을 통해서는 자동차의 내부 인테리어를 옷과 결합시키고 있다.

3. 타 예술 영역의 영향

Hussein Chalayan과 같은 연구 방식을 행한 선례의 디자이너가 있다면 1960년대의 Pierre Cardin (1922-)과 Paco Rabanne(1934-)의 작품들일 것이다. 그들은 파리 패션의 역사와 전통보다는 건축, 테크놀로지와 새로운 소재를 아이디어로 찾았다. Chalayan은 Christobal Balenciaga(1885-1972)⁵⁵⁾의 무게에 대한 관심, 테일러링, 드레이프와 옷의 늘어짐을 통한 복식에서의 공학적인 요소와 건축적인 구조에 대한 생각을 공유하고 있다⁵⁶⁾. Chalayan의 많은 옷들은 건축적인 선의 의해 나타나는 그래픽적인 요소들에 의해 특징지워지며⁵⁷⁾ 이는 '건축적인' 미를 창조한다. 선두적인 건축가들은 점차적으로 혁신하는 건

물로부터 보다는 공간에 관한 이론을 통해 영감을 받아 창조하고 있으며 Chalayan의 창작 과정 또한 이와 같은 접근법과 유사성을 가진다. 이처럼 그의 사고는 건축가와 평행선상에 있다. 그는 디자인을 위해 건축학적인 이론으로부터 컨셉을 가져오고 이를 적용시키고 있으며 이와 같은 영향은 건축학(architectural)에 의한 것이라기보다 건축술(architectonic)에 의한 것이라고⁵⁸⁾ 언급하고 있다.

Chalayan은 산업 디자이너, 음악가, 보석 디자이너 그리고 텍스타일 디자이너들과 함께 작업하고 있으며 그의 쇼에서의 작품들은 스코틀랜드(Scottish)의 산업 디자이너인 Paul Topen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다⁵⁹⁾. 또한 사진가 Marcus Tomlinson과의 공동 작업은 창조적인 탐구의 결합과 같다. 이와 같이 Chalayan은 패션과 다양한 분야와의 결합을 통해 새로운 가능성을 시도하고 있다. Chalayan이 1999년부터 패션 컬렉션과 더불어 창작하고 있는 'Art Projects' 역시 그의 타 예술 영역에 대한 관심과 패션과의 결합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는 패션의 무한한 가능성과 앞으로의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V. 컬렉션의 상징성과 디자이너의 예술의지

1. 인간 존재에 대한 형이상학적 표현

'우리가 이야기 할 수 없는 무엇에 관해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침묵해야 한다(Whereof we cannot speak, thereof we must be silent)'라는 L. Wittgenstein (1889-1951)⁶⁰⁾의 *Tractatus Logico-Philosophicus*(1921)⁶¹⁾에서의 유명한 언급이 Chalayan의 Panoramic 컬렉션의 출발점을 형성한다. 이 컬렉션에서 Chalayan은 현실 성은 시각적으로 보여질 수 있다는 것을 지시하고 있다. 이 제시의 근원은 인간과 환경의 결합을 통한 위장(camouflage)의 원리이다. 각 개인은 전적으로 환경과 혼합되고 이 과정에서 모든 개인성을 잃게 되는 것이다⁶²⁾. 또한 Afterwords 컬렉션을 통해 그는 인간의 정체성에 대한 형이상학적 고찰을 제시하고 있다. Chalayan은 인간의 존재론적 의미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으며 인간의 뿌리와 그 근원의 부재에 대한 현실적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그 자신의 경험과 무의식을 통해 표출되고 있는 개념들의 형상화로 현대 사회 속에서 정착지를 찾지 못하고 혼란을 거듭하고 있는 인간들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

이동성과 문화적 유동성은 인간 모두가 당면한 현대적 상황의 일부분이다. 인간은 속박이 없는 사회에 살고 있으며 다른 문화의 영역 사이에 어느 누구의 영역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에 길들여져 있다. Martin Heidegger(1889-1976)⁶³⁾는 '정착지 없이 혼란(Homelessness)'은 세계의 운명으로 다가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신 유행을 따르는(fashionable) 존재'라는 것은 뿌리가 존재하지 않는 세계에서 끊임없이 자신들을 재이미지화하고 재창조하는 존재인 것이다⁶⁴⁾. Susan Sontag(1933-2004)⁶⁵⁾은 '자기 자신은 문맥(text)이다. 건설되어야 할 어떤 과제인 것이다'라고 언급하고 있으며 Gilles Lipovetsky는 패션과 정신적인 유동성 사이의 연계에 대한 궁정적인 분석을 제시하며 현대 패션은 새로운 개개인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주장한다. Lipovetsky의 주장처럼 패션은 현대적 대상을 융통성이 있고 유동적이며 정신적으로 적용 가능하도록 훈련시킨다. 유동성이라는 주제는 Chalayan의 작품 세계에서 지배적인 테마인 여행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는 이동과 손실의 여행이며 또한 자아발견과 자아 스타일화로서의 여행이다. Chalayan의 많은 컬렉션에서의 디자인 모티프는 테크놀로지의 과정, 즉 비행기, 앤지니어링, 여행과 유동성에 관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는 탈위치, 이후 그리고 유랑과 같은 어두운 모티프에 의해 그림자 드리워진다. 그의 디자인에서 이 모든 현대성과 노스탈지아(nostalgia)와 역사주의(Historicism)의 거부에는 현대주의자들의 아이콘에서의 멜랑고리(melancholy)의 한 부분이 존재함을 보여준다.

Chalayan은 이후의 개념으로서 그리고 시·공간 초월의 개념으로서의 옷을 창작해내고 있다. 여기에는 '정착지 없이 혼란'의 개념과 인간의 존재론적 질문이 함축되어 있다. 논평자들은 그의 사고에서의 이성적인, 문화적인 그리고 과학적인 영향에 대해 중점을

두고 있으나 또한 그의 디자인에 스며들어있는 시적 인 우울감에도 관심을 드러낸다. 동시에 그의 작품들을 통해 표현되고 있는 피난처와 안락함, 노스탤지어 와 탐험, 삶의 공간과 그 공간을 형상화하는 이미지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 소외감이 고립된 현대의 주제를 만들어 낸다면 이는 또한 그것들을 재 발견하는 데에 있어 어떤 자유를 준다. 패션을 통해 인간의 소외감을 이점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⁶⁶⁾.

테크놀로지에 의해 조정되는 세상에서 개인의 개 성은 증가하고 있다. 개인의 다른 사람과의 접촉은 덜 중요해지고 좀 더 쉽게 대체 가능해지고 있다. 의사소통의 기술은 우리의 사고와 행동을 지배하고 또한 우리 자신의 이미지를 결정한다. Chalayan에 의하면 이는 고독의 고립되고 자율적인 형태에 의해 특 징지워진다⁶⁷⁾. 기술적으로 내몰린 현대 사회, 스피드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은 인간의 사고, 행동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자신을 받아들이는가에 대한 패러다임 이 된다. 결과적으로, 이것은 새로운 고립이 되고 자율적인 개인의 인류학을 창조해낸다⁶⁸⁾. Chalayan은 자신의 컬렉션을 통해 현대 사회 속에서의 인간의 존재적 의미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Chalayan에게 있어 옷은 그의 개인적 역사와 철학적 관념을 표출하는 수단이며 이는 각각의 그의 컬렉션을 통해 전달되고 있다. 바로 이러한 점이 그를 현 세대에서 가장 독창적이고 앞서가는 디자이너로 명명하는데 주저함이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2. 경계의 파괴

Chalayan은 ‘우리는 바르게 봐야만 하고 생각해야 하며 진정으로 삶 그 자체를 봐야 한다. 나의 작업은 인류가 무시하도록 선택한 가려진 과정들을 드러내는 것이다’라고 이야기 한다. 그가 개최한 뚜렷이 구분되는 작품 세계와 독보적인 이분야의 제휴적인 (interdisciplinary) 접근은 그를 우리 세대에서 가장 공상적인 디자이너로 만들며 그의 작품의 임팩트는 결코 가볍게 다뤄지지 않는다. 그는 건축의 이론을 수용하여 패션을 위한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이는 작품의 흥미 증가를 지속시키고 있다. 특

히 이면에 존재하는 사고와 과정이 무게 있게 존재하는 옷을 입는 것에 자부심을 가지는 관객들의 흥미를 지속적으로 끌고 있다⁶⁹⁾.

Chalayan은 그가 작업하고 있는, 컨셉을 만들어내는 다양한 방식으로서의 옷은 옷 자체로 제한되어 있지 않으며 이는 다른 미(aesthetics) 영역과 더 큰 컨셉들과 연계되어 있음을 언급한다. 즉 Chalayan은 인체, 패션, 테크놀로지 그리고 건축 사이의 관계를 탐사하고 분석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작품 창작의 과정을 컬렉션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아이디어는 그 과정의 중심에 위치하는데 이는 아이디어가 수많은 다른 방식으로 인식될 수 있기 때문이다. 대상을 시작점으로 취하는 것은 창작자를 제한하지만 과정을 창작의 시작으로 선택하는 것은 다수의 대상과 혹은 환경, 역사 혹은 인류학과 같은 것과 상호작용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⁷⁰⁾. Chalayan이 창조해내고 있는 과정들에는 그의 개인적 역사, 철학, 예술의지들이 혼재하며 이는 ‘옷’이라는 시각적 대상으로 재탄생하고 있다.

3. 다문화주의

패션에서 전통적인 복식과 비서양적인 복식을 사용하는 것은 새롭지 않다. 20세기 초 P. Poiret(1879-1944)의 오리엔탈리즘(orientalism) 혹은 1970년대 초 반기의 ‘민족적’ 스타일이 명백한 예시이다. 그러나 이런 모든 민족적인 것, 오리엔탈적인 것 혹은 전통적인 것에 대한 디자이너들의 열정에도 불구하고, 결코 이와 같은 스타일을 그들 자신의 디자인에서 동등한 수준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서양의 패션은 항상 그 자체가 이국적인 즐거움을 사용하는 틀로써 사용되어 왔으며 이는 그들의 양도할 수 없는 우월감에 대한 것이었다. Ambimorphous에서 Chalayan이 제시하고 있는 터키 전통 의상을 통해, 비서양 문화로부터의 차용이라는 기준의 패션 기준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그의 새로운 관점을 식별하게 된다. 그는 동양과 서양의 요소들이 동등한 위치에서 결합하기를 원했다. 그 자신의 디자인과 전통적인 복식을 나란히 위치시킴에 있어 Chalayan은 ‘어느 누구도 할 수 없고, 해서도 안 되는 것은 하나가 다른 하나보다

형태적 특성	의미·설정 요인	상상력·예술적 가치
* 실증적 대조 드레스와 동양 청자체 드레스 * 시간의 차이를 한 줄의 드레스 * 다양한 질서의 chadors와 yashmaks	* 실용적 차이를 드러내는 드레스 * 드레스도 원·옷·점퍼·재킷과 배드민턴 * 드레스와 춤복과 같은 드레스	* 인간의 몸과 관계되는 시리즈적, 문화적 영역 활용 * Multiculturalism-다양한 문화적 요소를 활용 * 예술과 종교를 찾는 전통적인 아시아디어 * 인체의 활동성화, 드라마틱 긴장의 반영
* 면적과 질량을 조절하는 드레스 * 역사와 푸른색으로 활합 * Motorized airplane dresses	* 면적과 질량을 조절하는 드레스 * 역사와 푸른색으로 활합 * Motorized airplane dresses	* 드레스의 질량을 조절하는 드레스 * 드레스의 질량을 조절하는 드레스 * 드레스의 질량을 조절하는 드레스
* 드레스의 복잡성을 조절하는 드레스 * 드레스의 복잡성을 조절하는 드레스	* 드레스의 복잡성을 조절하는 드레스 * 드레스의 복잡성을 조절하는 드레스	* 드레스의 복잡성을 조절하는 드레스 * 드레스의 복잡성을 조절하는 드레스
* 드레스의 풍경을 조성하는 드레스 * 드레스의 풍경을 조성하는 드레스	* 드레스의 풍경을 조성하는 드레스 * 드레스의 풍경을 조성하는 드레스	* 드레스의 풍경을 조성하는 드레스 * 드레스의 풍경을 조성하는 드레스
* 드레스의 풍경을 조성하는 드레스 * 드레스의 풍경을 조성하는 드레스	* 드레스의 풍경을 조성하는 드레스 * 드레스의 풍경을 조성하는 드레스	* 드레스의 풍경을 조성하는 드레스 * 드레스의 풍경을 조성하는 드레스
* 드레스의 풍경을 조성하는 드레스 * 드레스의 풍경을 조성하는 드레스	* 드레스의 풍경을 조성하는 드레스 * 드레스의 풍경을 조성하는 드레스	* 드레스의 풍경을 조성하는 드레스 * 드레스의 풍경을 조성하는 드레스
* 드레스의 풍경을 조성하는 드레스 * 드레스의 풍경을 조성하는 드레스	* 드레스의 풍경을 조성하는 드레스 * 드레스의 풍경을 조성하는 드레스	* 드레스의 풍경을 조성하는 드레스 * 드레스의 풍경을 조성하는 드레스
* 드레스의 풍경을 조성하는 드레스 * 드레스의 풍경을 조성하는 드레스	* 드레스의 풍경을 조성하는 드레스 * 드레스의 풍경을 조성하는 드레스	* 드레스의 풍경을 조성하는 드레스 * 드레스의 풍경을 조성하는 드레스
* 드레스의 풍경을 조성하는 드레스 * 드레스의 풍경을 조성하는 드레스	* 드레스의 풍경을 조성하는 드레스 * 드레스의 풍경을 조성하는 드레스	* 드레스의 풍경을 조성하는 드레스 * 드레스의 풍경을 조성하는 드레스
* 드레스의 풍경을 조성하는 드레스 * 드레스의 풍경을 조성하는 드레스	* 드레스의 풍경을 조성하는 드레스 * 드레스의 풍경을 조성하는 드레스	* 드레스의 풍경을 조성하는 드레스 * 드레스의 풍경을 조성하는 드레스
* 드레스의 풍경을 조성하는 드레스 * 드레스의 풍경을 조성하는 드레스	* 드레스의 풍경을 조성하는 드레스 * 드레스의 풍경을 조성하는 드레스	* 드레스의 풍경을 조성하는 드레스 * 드레스의 풍경을 조성하는 드레스
* 드레스의 풍경을 조성하는 드레스 * 드레스의 풍경을 조성하는 드레스	* 드레스의 풍경을 조성하는 드레스 * 드레스의 풍경을 조성하는 드레스	* 드레스의 풍경을 조성하는 드레스 * 드레스의 풍경을 조성하는 드레스
* 드레스의 풍경을 조성하는 드레스 * 드레스의 풍경을 조성하는 드레스	* 드레스의 풍경을 조성하는 드레스 * 드레스의 풍경을 조성하는 드레스	* 드레스의 풍경을 조성하는 드레스 * 드레스의 풍경을 조성하는 드레스
* 드레스의 풍경을 조성하는 드레스 * 드레스의 풍경을 조성하는 드레스	* 드레스의 풍경을 조성하는 드레스 * 드레스의 풍경을 조성하는 드레스	* 드레스의 풍경을 조성하는 드레스 * 드레스의 풍경을 조성하는 드레스
* 드레스의 풍경을 조성하는 드레스 * 드레스의 풍경을 조성하는 드레스	* 드레스의 풍경을 조성하는 드레스 * 드레스의 풍경을 조성하는 드레스	* 드레스의 풍경을 조성하는 드레스 * 드레스의 풍경을 조성하는 드레스
* 드레스의 풍경을 조성하는 드레스 * 드레스의 풍경을 조성하는 드레스	* 드레스의 풍경을 조성하는 드레스 * 드레스의 풍경을 조성하는 드레스	* 드레스의 풍경을 조성하는 드레스 * 드레스의 풍경을 조성하는 드레스
* 드레스의 풍경을 조성하는 드레스 * 드레스의 풍경을 조성하는 드레스	* 드레스의 풍경을 조성하는 드레스 * 드레스의 풍경을 조성하는 드레스	* 드레스의 풍경을 조성하는 드레스 * 드레스의 풍경을 조성하는 드레스
* 드레스의 풍경을 조성하는 드레스 * 드레스의 풍경을 조성하는 드레스	* 드레스의 풍경을 조성하는 드레스 * 드레스의 풍경을 조성하는 드레스	* 드레스의 풍경을 조성하는 드레스 * 드레스의 풍경을 조성하는 드레스
* 드레스의 풍경을 조성하는 드레스 * 드레스의 풍경을 조성하는 드레스	* 드레스의 풍경을 조성하는 드레스 * 드레스의 풍경을 조성하는 드레스	* 드레스의 풍경을 조성하는 드레스 * 드레스의 풍경을 조성하는 드레스
* 드레스의 풍경을 조성하는 드레스 * 드레스의 풍경을 조성하는 드레스	* 드레스의 풍경을 조성하는 드레스 * 드레스의 풍경을 조성하는 드레스	* 드레스의 풍경을 조성하는 드레스 * 드레스의 풍경을 조성하는 드레스

<그림 19> Hussein Chalayan 컬렉션 분석⁷¹⁾

우월하다고 추측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⁷²⁾. 그는 동양과 서양의 문화적 동등함을 표명하고 있으며 그의 디자인을 통해 다문화주의와 문화적 상대주의 관점을 드러내고 있다.

Between 컬렉션을 위해서 Chalayan은 인간의 몸과 관계되는 지리학적이고 문화적 영역을 탐구했으며 다양한 문화적 코드를 수용하는 이탈자적 영역에 입문하게 된다⁷³⁾. 고유의 복식, 전통적인 드레스 그리고 지역적 스타일은 그들이 유래한 환경에 결속되어 있으며 옷은 옷을 문화와 전통의 기호로 작용하게 만드는 타고난 고고학(archaeology)적인 특성을 가진다. 패션쇼의 마지막 무대에 6명의 모델이 드레스의 길이를 달리한 챠도르를 입고 등장한다. 이는 전통적 드레스가 정의내리는 역량을 탐구하고 착장자의 신분을 숨김으로써 인체를 몰개성화시키고 있다. 베일을 쓰는 것에 대한 사회적 중요성에 대해 인류학자인 Fadwa El Guindi는 '드레스의 형태와 행동은 철회, 은둔 혹은 격리와는 함께 하지 않는다'고 언급하며 Chalayan의 주장을 지지한다.

베일은 착장자에게 관객의 반응을 측정 가능하게 하는 반면 관람자들에게는 익명으로 남아있게 한다. 시야와 유동성을 이슬람 드레스의 핵심적인 관점이다. 그리고 베일을 가리는 것에 의해 가능한 프라이버시는 건물의 피신처와 비교될 수 있다. 베일을 가리는 것이 착장자에게 자유롭게 거니는 것을 허용하는 것임에도 이는 그들의 행동을 통제한다. Chalayan의 드러냄과 감춤의 반전은 시각성의 현대적 무드를 가진 베일을 가리는 것과 병치한다. 이는 베일로 가리는 것이 보기를 원하고 보여지지 않도록 남아있기를 원하는 착장자에게 파워를 제공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Chalayan의 작품에서 베일로 가리는 것은 건축적인 장치로 해석될 수 있다. 그리고 베일 그 자체는 그의 작품을 통해 표현되고 있는 테마의 다양한 방식의 상징으로 작용한다. 베일은 분리하고, 숨기고, 공간을 정의하고, 문화적 경계를 정한다. 그러나 또한 이중성과 이심을 불러일으킨다. 베일은 체계적으로 분류되지 않았고 완고하며 가까이 하기 어려운 반면 동시에 드라마틱하며, 에로틱하고 매혹적이기까지 하다. Chalayan에게 있어 베일은 경계선(boundary)과 가장자리(border) 양쪽의 기능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또한 분리와 전위를 상징화 한다⁷⁴⁾.

VII. 결론

Hussein Chalayan 디자인의 가장 큰 특징은 다문화주의이다. 여기에는 역사적, 지역적, 문화적, 예술적 그리고 개념적 의미가 포함된 것으로 그는 이러한 것들의 경계를 파괴하고 확장시키고 혼합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너머의 것들을 옷을 통해 전달하고자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는 디자이너이다. '경계란 어떤 것이 존재하기를 멈추는 곳이 아니라, 어떤 것이 존재하기를 시작하는 지점이다'라는 M. Heidegger의 언급⁷⁵⁾처럼 그에게 있어 다양한 경계의 존재는 디자인을 시작하는 출발점을 이룬다. Chalayan은 시간과 공간을 서로 교차하고 차별성과 정체성, 과거와 현재, 안과 밖, 포괄성과 배타성의 복잡한 모습⁷⁶⁾을 옷을 통해 표현하고자 하며 이것이 그를 다른 디자이너들과 뚜렷하게 구분짓는 요소이기도 하다. 이는 Chalayan로 하여금 열린 상황과 형태를 만들게 하고 이를 통해 관조자들로 하여금 열린 사고를 가능하게 한다.

Chalayan의 디자인과 그의 패션쇼는 기존의 관념을 깨뜨린다. 그의 옷을 입은 모델들은 하나의 여성이라는 존재로서가 아니라 다면적인 가치를 지닌 하나의 상징적 대상으로서 존재한다. 패션쇼 역시 기존의 단지 '옷'을 제시하던 방식이 아닌 하나의 '퍼포먼스'를 선보이고 있다. 그가 무대 위의 향연을 통해 제시하는 이 시각적인 언어는 개념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다가가며 관조자들은 이를 수용하게 된다. 그의 작품은 '옷'이라는 커다란 경계 안에서 그 경계를 넘나들며 변형을 거듭한다. 그의 작품은 때로는 비행기가 되고 때로는 건축물이 되며 또는 가구로 변형한다. 또한 그의 옷은 인간의 죄를 구원하고 인간의 소외를 형상화하며 삶의 덧없음을 외친다.

Chalayan의 디자인은 다양한 영역을 넘나들며 다면적인 가치를 가진 대상으로서 의미를 가지며 이는 그의 철학을 표출하는 대상인 것이다. 그에게 있어서 '옷'은 자신의 내면의 무의식과 관념을 표출해내는 대

상이다. Chalayan의 어린 시절 경험이 가장 크게 그의 무의식을 자리잡고 있으며 이는 1차적으로는 이주와 이동의 개념으로 표출되며 더 나아가서는 인간의 존재론적 질문을 통해 표현되고 있다. 그의 ‘옷’은 그만의 표현 어휘에 따라 끝없이 변형되고 시간과 공간을 넘나들며 이를 초월하는 개념을 형상화시키고 있다. M. Heidegger의 주장과 같이 관조자들은 Chalayan의 작품 속으로 잠입하여 그의 코드화된 이미지를 읽어내야 하며 그가 제시하고 있는 열린 개념을 통해 일상적인 것으로부터 벗어난 사고를 해야 한다. 그의 옷은 ‘그 자신이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시작으로

‘인간의 존재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으로 나아가게 된다. 그의 작품 속 인간은 ‘옷’이라는 착장을 통해 항상 이동하며 이주한다.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는 인간의 혼매임을 옷을 통해 시각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인간의 이 혼매임은 공간의 혼매임이 되기도 하며 시간의 혼매임이 되기도 하고 이데올로기, 사상, 감정 등 다양한 형태의 혼매임을 의미한다.

인간의 존재적 혼매임은 그의 어린 시절 형성된 자아와의 연관성을 가지며 그의 작품 곳곳에 드러난다. 그의 작품은 항상 유동적이며 이동한다. 그것이 형태적이든 개념적이든 Chalayan의 자아와 관념을 따라 움직인다. 그의 옷은 비행기가 되어 이동하고 자동차의 속도감을 형상화하며 리모트 컨트롤에 따라 변형한다. 또한 옷과 건축이라는 인간의 삶을 담아내는 이분야의 제휴적인 결합을 통해 새로운 공간을 창출해 낸다. 그의 디자인 속 놀라운 사고의 전환은 기존의 관념과 감각을 넘어서는 것이며 현재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그 무언가를 새롭게 만들어낸다. 21세기를 맞이한 Chalayan은 좀 더 관념화되고 형이상학적인 개념에 심취해 있다. 인간의 자아, 원죄, 희망, 구원, 허무 등을 자신의 작품들과 결합시키고 있으며 이는 그의 패션 창작과 그 과정을 종합예술의 방향으로 나아가게 만든다.

그의 특이한 성장 배경은 그에게 존재론적인 사고를 가능하게 만들었으며 이는 인간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옷’이라는 대상을 통해 표출되고 있다. 그가 창작하고 있는 옷은 더 이상 착장의

의미를 가진 옷이 아니다. 이는 인간의 자아를 드러내는 또 하나의 다른 자아로서 존재한다. 그의 옷은 인간을 거주하게 하는 안식처가 되고, 이동 가능한 수단이 되며, 인간의 물질적, 정신적 소지품을 담아내는 대상이 되며 시간의 흐름을 드러내고 공간의 이동을 시각화시킨다. 또한 인간의 내면에 깊숙이 뿌리박혀 있는 원죄와 고통, 그리고 고독의 본질을 표출한다. 각 컬렉션 속의 작품들은 각기 다른 관념적 주제를 가지고 등장한다. 인간의 몸과 그 몸 위에 입혀지는 옷을 통해 인간의 역사, 문화, 사회, 그리고 미래를 제시한다. 그의 옷은 자신과 자신이 영원히 속해있는 고향의 역사를 아우르며 자신의 본질적 뿌리를 생각하고 찾도록 만든다. 그의 옷은 다양한 문화적 코드를 수용하고 이를 탐구한다. 그의 옷은 현 사회 속 인간의 존재와 정체성을 찾도록 부추기며 우리의 감각을 넘어 선 인간의 존재에 대한 형이상학적 논의를 한다. 그리고 현대 문명의 테크놀로지를 옷과 결합하여 인간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아우르며 인간의 존재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Chalayan과의 소통을 원하는 관조자는 그가 제시하는 작품 속의 코드를 읽어내고 그가 창작해낸 세계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단지 그가 제시하고 있는 작품을 바라보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Chalayan의 성장 배경에서 비롯된 그의 내적 예술의지를 읽어내어야만 그의 작품에 진정으로 동화될 수 있으며 그의 작품을 통한 소통이 이뤄지는 것이다. 그의 작품은 미적 향수를 공유하는 단계를 넘어서 관조자로 하여금 사고하게끔 만들며 단순히 아름답다거나 추하다거나 회화되었다거나 슬프다거나 하는 감정의 공유 단계를 넘어서고 있다. 그의 작품을 보는 순간 관조자들은 그의 작품이 무엇을 형상화한 것인지 그리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질문하게 된다. 그리고 과연 ‘옷’이라는 대상을 통해 그의 의도가 충분하게 전달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되기도 한다.

‘옷’이라는 대상은 인체와의 직접적인 관계 형성을 통해 완성되는 예술로서의 장점이 존재하지만 Chalayan의 예술의지를 드러내기에는 부족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는 좀 더 시간과 공간의 경계를 초월

할 수 있는 그 무언가를 원하고 있으며 이는 그가 타 예술 분야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와의 결합을 시도하고 있는 이유이다. Chalayan은 1999년 A/W 시즌부터 'Art Projects'를 통해 그의 작품 영역을 넓혀 나가고 있다. 이는 20세기 이후 등장한 예술의 새로운 분야인 개념 미술, 행위 예술, 과정 미술과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Chalayan은 이처럼 패션이라는 분야를 통해 본질주의적이고 형이상학적인 질문을 던지며 끊임없이 새로운 관념의 표출을 시도하고 있다.

참고문헌

- 1) Breward, C. (2003). *Fash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p. 238.
- 2) Quinn, B. (2005). *Hussein Chalayan: An Architect of Ideas*. Rotterdam: Nai Publishers, p. 46.
- 3) Evans, C. (2005). *Hussein Chalayan: No Man's Land*. Rotterdam: Nai Publishers, p. 8.
- 4) 그는 졸업 쇼에서 땅에 파묻었던 옷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Chalayan의 대상이 공기 중에서 변화하는 아이디어는 'Young British Artist(YBA)' 운동을 불러 일으켰다. Young British Artist는 'Britartists' 그리고 'Britart'라고 불리며 영국에 근원을 둔 개념 예술가 (conceptual artists), 화가, 조각가 그리고 설치 예술가들의 그룹을 일컫는 말이다.
- Menkes, S. (2005). *Hussein Chalayan: Celebrating the Cerebral*. Rotterdam: Nai Publishers, p. 155.
- 5) Twist, K. V. (2005). *Hussein Chalayan*. Rotterdam: Nai Publishers, p. 18.
- 6) Evans, C. *op. cit.*, pp. 15-16.
- 7) 고밀도의 폴리에틸렌(polyethylene) 합성섬유로 DuPont Company의 대표적인 섬유. 매우 질기고 찢기 힘들며 수중기는 통과하지만 물은 흡수하지 않아 의학적인 용도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 8) Quinn, B. *op. cit.*, p. 46.
- 9) Twist, K. V. *op. cit.*, p. 90.
- 10) Evans, C. *op. cit.*, p. 16.
- 11)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 모든 문화는 각자 독특하고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운동. 일부 문화인류학자들이, 그들의 기준으로 보기에 '미개 한' 야만인의 문화도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고유한 문화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시작한 것이다. 문화다원주의는 1980년대 들어 주목받기 시작했다.
- 자료검색일 2008.3.12. 자료출처 <http://www.britannica.co.kr/>
- 12) Twist, K. V. *op. cit.*, p. 30.
- 13) Evans, C. *op. cit.*, p. 11.
- 14) Twist, K. V. *op. cit.*, p. 70.
- 15) *Ibid.*, p. 90.
- 16) Evans, C. *op. cit.*, p. 14.
- 17) Twist, K. V. *op. cit.*, p. 112.
- 18) *Ibid.*, p. 146.
- 19) Breward, C. *op. cit.*, p. 238.
- 20) Twist, K. V. *op. cit.*, pp. 88-89.
- 21) *Ibid.*, p. 55.
- 22) *Ibid.*, p. 65.
- 23) Marcus Tomlinson: 런던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진가, 필름 제작자, 광고 제작자이다. 그의 작품들은 예술적 가치를 높이 평가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업적인 성공까지 획득하고 있다. 그는 Christain Lacroix, Hussein Chalayan, Issey Miyake와 같은 패션 디자이너들과의 공동작업으로도 유명하다.
자료검색일 2008.3.12. 자료출처 http://en.wikipedia.org/wiki/Marcus_Tomlinson
- 24) Twist, K. V. *op. cit.*, p. 73.
- 25) Evans, C. *op. cit.*, pp. 11-14.
- 26) 자료검색일 2008.1.24. 자료출처 <http://www.husseinchalayan.com/>
- 27) Quinn, B. *op. cit.*, p. 46.
- 28) Evans C. *op. cit.*, p. 11.
- 29) Twist, K. V. *op. cit.*, p. 77.
- 30) 자료검색일 2008.1.24. 자료출처 <http://www.husseinchalayan.com/>
- 31) 자료검색일 2008.1.24. 자료출처 <http://www.husseinchalayan.com/>
- 32) Polhemus, T. (2005). *Hussein Chalayan: The Post-modern Designer*. Rotterdam: Nai Publishers, p. 107.
- 33) 자료검색일 2008.1.24. 자료출처 <http://www.husseinchalayan.com/>
- 34) 기다란 베일의 페르시아(Persian) 이름으로 이슬람교도(Muslim)의 여성들이 머리를 가리기 위해 쓰던 베일이다. '网投'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종교, 민속 그리고 이슬람 전통의 만남 을 의미한다. Vergani, G. (2006). *Fashion Dictionary*. New York: Baldini Castoldi Dalai editore Inc., p. 254.
- 35) Twist, K. V. *op. cit.*, p. 37.
- 36) *Ibid.*, p. 112.
- 37) *Ibid.*, p. 75.
- 38) *Ibid.*, p. 78.
- 39) *Ibid.*, pp. 60-61.
- 40) 화상을 서서히 변화시키는 기법. 원래의 이미지와 변화시킬 이미지 등 2개 이상의 영상이 필요 한데 이들 복수의 영상 간에 대응점을 찾아서 이미지를 변형시킨다.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한 영 화 등에 주로 쓰며, 자연스러운 영상 처리 기술을 표현할 수 있다.
자료검색일 2008.3.12. 자료출처 <http://enc.daum.net/dic100/contents.do?query1=15XXXX5723>
- 41) 자료검색일 2008.1.24. 자료출처 <http://www.husseinchalayan.com/>
- 42) Twist, K. V. *op. cit.*, p. 30.
- 43) *Ibid.*, p. 99.

- 44) *Ibid.*, p. 128.
- 45) *Ibid.*, p. 132.
- 46) 사회적 언급은 종종 예술의 테마가 되고 있으나 패션의 역사 속에서는 거의 발견되고 있지 않다. 사회적 언급을 표방하는 디자이너로 Chanel의 경우, 그녀의 디자인은 여성들을 그들을 구속하는 코르셋으로부터 자유롭게 했으며 그들의 해방에 상당한 공헌을 하고 있다. 네덜란드(Dutch)의 디자이너인 Viktor & Rolf의 경우 역시 사회적 언급을 불러일으키는 디자이너들이다. *Ibid.*, p. 6.
- 47) Polhemus, T. *op. cit.*, p. 108.
- 48) Evans, C. *op. cit.*, p. 10.
- 49) Twist, K. V. *op. cit.*, p. 52.
- 50) *Ibid.*, p. 80.
- 51) Polhemus, T. *op. cit.*, p. 107.
- 52) Marc Newson(1963-): 오스트레일리아 시드니 태생의 산업디자이너로 그는 공학, 제품, 가구, 보석, 그리고 옷의 디자인까지 다양한 디자인 분야에서 성공을 거둔 디자이너이다. 그의 디자인은 생체 표현(biomorphism)으로 잘 알려져 있다.
자료검색일 2008.3.12. 자료출처 http://en.wikipedia.org/wiki/Marc_Newson
- 53) Menkes, S. *op. cit.*, p. 157.
- 54) Evans, C. *op. cit.*, pp. 11-14.
- 55) Christobal Balenciaga(1885-1972): 스페인 태생의 패션 디자이너. ‘구성의 대가’와 ‘실루엣의 재창자’로 인식되었으며 색채, 재단, 장식 등의 연구를 통해 멋진 조화와 극적 효과를 얻었다. Balenciaga는 1950년대 후반에 허리선 없이 나부끼는 옷과 케이프를 유행시키고, 1960년대 중반 플라스틱 비옷을 유행시켰다.
자료검색일 2008.3.12. 자료출처 <http://www.britannica.co.kr/>
- 56) Evans, C. *op. cit.*, p. 8.
- 57) Quinn, B. *op. cit.*, p. 47.
- 58) *Ibid.*, p. 48.
- 59) Evans, C. *op. cit.*, p. 9.
- 60) Ludwig Wittgenstein(1889-1951): 오스트리아 태생의 영국 철학자로 저서에는 「논리 철학 논고(論考)」, 「철학 탐구」가 있다. 1925~50년 영국 철학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철학자 중 한 사람으로, 논리학 이론과 언어철학에 관한 독창적이며 중요한 철학적 사유 체계를 제시 했다. 「논리철학 논고」의 마지막 문장, “말할 수 없는 것에 관해서는 침묵해야 한다”는 결코 진부한 말이 아니다. 이 문장은 아무것도 말할 수 없는 어떤 영역이 ‘존재한다’는, 말할 수도 사고할 수도 없는 학설을 담은 매우 형이상학적인 주장이다.
자료검색일 2008.3.12. 자료출처 <http://www.britannica.co.kr/>
- 61) L. Wittgenstein이 제 1차 세계대전 중에 저술한 저서로 1921년 독일에서 첫 출판되었다. 이 책은 20세기 철학서 중 가장 중요한 저서로 꼽히고 있으며 형이상학에 대한 논의를 우리의 감각을 넘어선 영역으로 결론짓고 있으며 이는 단지 보여지는 것이며 언어를 통해서는 논의될 수 없다고 결론짓고 있다.
- 자료검색일 2008.3.12. 자료출처 <http://www.britannica.co.kr/>
- 62) Twist, K. V. *op. cit.*, p. 38.
- 63) M. Heidegger(1889-1976): 독일의 철학자. 20세기 실존주의의 대표자로 꼽히는 독창적인 사상가이며 기술 사회 비판가. M. Heidegger는 *Der Ursprung des Kunstwerkes* in: *Hozwege*(‘예술작품의 근원’, 1950)이라는 논문에서, 예술작품의 사물성을 단서로 삼으면서 주체를 모든 존재자가 그것에 관계되는 중심으로서 자리 잡게 하고, 존재자의 존재를 대상성으로서만 파악하는 근대철학과 미학을 비판하며 예술의 본질에 대한 물음을 독자적인 실존론적 존재론 및 진리론 속에서 전개시키려고 한다. 竹内敏雄 (1974). 美學·藝術學 事典. 안영길 역 (2003). 미학·예술학 사전. 서울: 미진사, pp. 129-130.
- 64) Evans, C. *op. cit.*, p. 10.
- 65) Susan Sontag(1933-2004): 미국의 수필가, 소설가이며 영화 제작자이며 평론가이다. Sontag 평론에 나타나는 특징은 현대문화의 다양한 면과 성격에 대해 진지하고 철학적으로 접근한다는 것이다. 자료검색일 2008.3.12. 자료출처 <http://www.britannica.co.kr/>
- 66) Evans, C. *op. cit.*, pp. 12-13.
- 67) Twist, K. V. *op. cit.*, p. 158.
- 68) Polhemus, T. *op. cit.*, p. 111.
- 69) Quinn, B. *op. cit.*, p. 51.
- 70) *Ibid.*, p. 47.
- 71) Hussein Chalayan 컬렉션 분석을 위한 사진 자료는 Twist, K. V. (2005). *Hussein Chalayan*. 과 <http://www.husseinchalayan.com/>으로부터 사용하였다.
- 72) Polhemus, T. *op. cit.*, p. 108.
- 73) Twist, K. V. *op. cit.*, p. 30.
- 74) Quinn, B. *op. cit.*, p. 50.
- 75) Heidegger, M. (1971). *Building, dwelling, thinking*. Poetry, Language, Thought. 박금제 역 (1999). 21세기 문학 미리보기: 문학의 위치. 서울: 시각과 언어, pp. 431-442.
- 76) Bhabha, H. K. (1994). *Preface: the Location of Culture*. The Location of Culture. 박금제 역 (1999). *Ibid.*, pp. 431-442.